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42. 둘째, 셋째 나팔

2013. 10. 20.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둘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셋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8:10,11]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 이 별 이름은 썩이라 물들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1.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둘째 나팔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셋째 나팔의 내용을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네요.

답: 아직도 둘째 나팔에 대하여 좀 더 이야기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교회 교인이 되었을 때 나팔 부는 것으로 표상된 예언에 대하여 배웠는데, 첫째 나팔을 서고트족이 아라릭의 영도 하에 로마를 침략한 사실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나팔은 반달족이 서로 마를 침략한 사건으로 설명했습니다. 훈족이 중앙아시아로부터 침입을 하여 정착지를 잃은 반달족이 455년에 로마시를 침략한 사실을 예언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주간에 걸쳐서 로마시를 강탈하고 지중해를 덮쳐서 로마의 선박 1300척 중에서 1100척을 파괴한 사건으로 설명했지요. 그래서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배들을 불태운 것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설명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계시록의 예언이 4각 기둥의 네 면과 같이 거의 같은 기간에 있는 각각 다른 측면의 사건을 계시한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하면서 그때 배운 것에 수정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맥스웰 교수의 계시록 해석이 역사주의적 견해로 성경적으로 합당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2. 예, 그랬군요. 목사님이 계시록을 4각 기둥의 네 면으로 설명할 때 아주 합리적인 견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다니엘서가 왜 제국을 중심으로 예언되었는지, 계시록의 예언이 왜 교회를 중심으로 예언되었는지를 설명할 때 합리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니엘서 2장이 다니엘서 전체의 프레임인 것처럼 계시록은 일곱 교회가 계시록 전체의 프레임이고 이 교회의 역사적 진행과 발전에 맞추어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4각 기둥의 네 면에서 출발점이 거의 같고, 역사적 사건의 순서를 따라 비슷한 연대에서 진행되는 교회가 세상에서 하는 역할에 맞추어 세상 세력이 교회와 관계 속에 별리는 예언이라고 이해할 때, 목사님의 견해가 합리적 이해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답: 고맙습니다. 그런데 좀 전문적이긴 하지만 셋째 나팔 사건을 살피기 전에 짚고 갈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팔 사건이 역사적으로 언제 있을 것인가 하는데 대한 논의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대주의적 해석은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반역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붓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은혜의 시기 지난 다음에 있을 사건으로 보는 사람과 저처럼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볼지라도 사건의 이해를 똑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요. 알라릭의 침범이나 겐세릭의 침입 등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째 나팔에 일곱 가지 상징적 표현과 7장에 인치는 사업에서 말하는 상징적 표현이 아주 비슷한 사실에 근거해서 인치는 사업이 마친 후에 나팔 사건이 일어났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라디오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애청자들이 굳이 알아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히 짚고 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말하는 것입니다.(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치는 사건은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있는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해석자들이 말하는 대로 6장 마지막에 굴과 산과 바위에 자기들 위에 떨어져서 어린양의 진노에서 자기들을 가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누가 서리요 라고 부르짖을 때, 인 맞은 사람들이 거기에 선다는 대답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하거든요. 타당한 이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기록된 상징들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가지고 일곱 나팔이 인치는 사건 후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있을 재앙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3. 비슷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답: 예, 7:1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고 했지요. 여기 땅, 바다, 각종 나무가 있지요, 첫째 나팔에도 땅, 바다, 수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칠 때 붙들었던 것이 첫째 나팔에서 놓였다는 말이지요.(그럴 듯 한데요?) 그렇지요 그럴 듯 하니까 이론이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인치는 7장과 나팔의 8장이 연관되어 있다는 가정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9:4절을 보면 다섯째 나팔에 인 맞은 자들을 보호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것처럼 7장에서도 인 맞은 사람이 보호받는 사람이니까 나팔과 인치는 사건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공부한대로 역사적 사건인데, 여섯째 인을 떼 후 천연계 현상 중에 하늘이 말려 떠나가는 사건이 있기 전 역사적 시점에 있을 인치는 사건이 있지만, 다섯째 나팔에 보호받는 인 맞은 사람들은 이런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 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요, 9장의 인 맞은 사람은 전 역사를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인 치심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7장은 특정한 시기에 있을 특별한 사건으로 인 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나팔을 부는 시기는 은혜의 기간이 끝난 후에 있는 재앙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것과 인에 대한 계시처럼 4각 기둥의 한 면에서 시작점은 교회와 인의 사건과 같은 시점에서 출발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계시록 이해의 중요한 점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4. 예, 목사님, 아마 애청자들께서도 그렇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셋째 나팔 사건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답: 그렇게 합시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읍시다.

[계8:10,11]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 이 별 이름은 썩이라 물들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에도 상징적 말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햇불, 큰 별, 하늘에서 떨어짐, 강, 3분의 1 물샘, 썩 이렇게 일곱 개의 상징 낱말들이 있습니다. 햇불은 밝히는 빛이지만 영구적인 빛은 아닙니다. 별은 천사를 표상하거나 세상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강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샘물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냅니다. 썩은 악한 영향을 나타냅니다.

5. 이 단어들을 목사님이 풀이하듯이 그렇게 풀이하면 되는 것입니까? 근거를 제시해야지요.

답: 당연히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요. 햇불이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12번 나타나는데 모두 불타는 모습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햇불을 들 때에는 어둠을 밝히기 위한 때이고 또 기드온은 밤에 공격할 때 사용했습니다. 별은 천사를 표상하는 것은 계12:3에서도 알 수 있고, 욥기38:7에서도 알 수 있고, 지도자라는 것은 계1:20에서 알 수 있지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에 떨어진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10:18)고 했습니다. 강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요7:38,39에서 알 수 있고 샘물이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은 요4:14에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샘과 우물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잠13:14]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12:3]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계21: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런 여러 말씀들이 샘물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썩은 악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은 신29: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설명이 다 있네요. 이제 이런 사건이 생기는 역사적 사건을 말씀하여야 되겠습니다.

답: 예, 제가 전에 계시록을 배울 때 이것은 훈족의 대장 아틸라가 로마를 침입하여 약탈하고 파괴한 사실을 가리킨다고 배웠습니다. 하늘에 떨어진 큰 별이 훈족의 대장 아틸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주의적 이해로 알았는데 그 후에 계시록 읽고 생각하면서 역시 그것은 역사에 일어난 일을 성경 예언에 무리하게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째, 둘째 나팔 사건을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던 세력이 심판으로 멸망하자 엉뚱한 세력이 교회를 침입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엉뚱

한 세력은 사단의 사주를 받는 세력입니다. 이것은 교회시대로는 두아디라 시대에 해당되고 인 시대로는 넷째 인 시대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의의 천사처럼 위장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세력은 일찍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때에 나타나도록 막는 자가 있었는데, 그 막는 자가 사라지자 즉시 나타난 것입니다.

6. 막는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또 의의 천사처럼 위장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앉은 자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 이미 일곱 교회에 대하여 연구할 때와 일곱 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계시록의 계시가 4각 기둥의 네 면과 같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角度)로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예언은 이주 입체적입니다. 교회의 역사적 진행과 발전을 바탕으로 하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세상의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과 그리고 그런 사건이 세상에 일어나게 된 배후 사건을 4각 기둥의 네 면으로 보여주어서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한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 보고요.

[살후2:3~7]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5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6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7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마24:15에 말씀하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는 사실을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숭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때에 나타나도록 막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막는 자가 없으면 그때 나타날 것인데, 그때가 바로 자기 때가 되겠지요. 자기는 멸망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다니엘이 예언한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인데, 그것이 시작한 때가 538년입니다. 동로마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반포한 로마 감독이 모든 기독교의 머리라는 칙령을 실시할 수 있게 된 때가 자기 때입니다. 그것이 자기 때에 나타나도록 막는 자는 제국로마입니다. 제국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는 동안에는 나타나지 못하다가 둘째 나팔 사건으로 제국로마가 붕괴되자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교연합 권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7. 셋째 나팔에 나타난 내용과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어떤 연관이 되는 지 확실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답: 셋째 나팔을 부니까 햇불 같이 타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것은 사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하늘에서 심판을 받아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나팔은 루시퍼의 심판에 대한 것을 골자로 하고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심판으로 쫓겨나면서 세상에는 자기를 햇불처럼 불타는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고후11장을 읽어봅시다.

[고후11:13~15]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귀혹의 역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도바울은 사단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을 밝히 가르쳐서 성도들이 속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런 성경의 경고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타난 도덕적 성취를 보고 그 종교의 진실도(眞實度)를 재는 것 같거든요. 루시퍼가 하늘에서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면서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햇불처럼 타는 아주 밝은 별처럼 세상에 내려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이롭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대리자를 의의 일꾼으로 보이게 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히고 배후에 자기가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셋째 나팔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루시퍼의 심판과 그것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햇불처럼 밝은 모습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지만 정체는 썩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를 가짜 성령의 역사로 바꾸고 생명의 샘물을 쓰게 만들어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썩의 쓴물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3분의 1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썩에 대하여 성경 여러 곳에 말씀했습니다.

[렘9:13~16]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14 그 마음의 강박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좃았음이라 15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썩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16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헤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렘8:14]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썩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고 했는데, 썩을 짠 물이 독한 물입니다. 8:14의 독한 물도 썩물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도할 때에 이를 결과를 말씀한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23장에도 있습니다.

[렘23:15]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썩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에게 썩을 먹이고 썩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들로부터 사

악함이 나와서 온 땅에 퍼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썩물을 마시면 쓰고 괴롭습니다. 예레미야는 썩에 대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애가에서는 고초와 재난을 썩과 담즙으로 비유했습니다.

[애3:19] 내 고초와 재난 곧 썩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두아디라 교회 시대요, 넷째 인의 시대와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이 세력은 진리를 땅에 던지고 하늘 성소를 헐고 매일의 봉사를 자신이 차지하고 세상에 진리가 올바르게 증거되지 못하도록 불의로 진리를 막았습니다. 루시퍼의 사상이지요.

8. 목사님, 그런데 나팔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 내지는 징계 또는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루시퍼를 심판하신 사실이 세상에 미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겠군요.

답: 예, 셋째 나팔은 루시퍼의 심판을 골자로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사실 교회가 진리를 떠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콘스탄틴 황제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미 오래전에 공부 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세상의 권력과 명성과 부를 맛보기 시작한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력에 깊이 물들었습니다. 이런 기간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었지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나팔을 단독으로 보면 안 되고 두아디라 교회, 넷째 인과 합해서 입체적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배려와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 조직에 심판으로 하늘에서 쫓겨난 루시퍼가 광명한 천사처럼 덮친 것이지요. 그래서 루시퍼에게 사로잡혀 진리자체를 핍박한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진리를 핍박하고 땅에 던져버린 그 세력이 썩이 된 상태가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이지요.

[렘2:19]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애3:43,44]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륙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44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화가 미칩니다. 영적으로 암흑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그 단체 안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숨기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것이 고통이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것이 됩니다. 셋째 나팔은 중세 교회의 타락을 예언한 것입니다.

9. 예, 목사님 쉽지는 않습니다만, 진리를 핍박한 교회조직에 대한 심판이 썩이 되게 했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망하게 두시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교회를 떠나시는 심판이 가까이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개혁하고 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사랑으로 권고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